

# 〈수시리상이 어려운〉      〈수시리상되는〉 國立公園入場料와 文化財觀覽料는 利用者위해 分離徵收 마땅

河 永 辰

最近 急速한 都市化로 인하여 自然을 찾는 人口가 每年 急増하고 있는 時點에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天惠의 自然資源과 文化資源등을 所有하고 있는 國立公園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公園入場料에 대하여 한 번쯤은 무엇인가 생각한바 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表現일 것이다.

물론, 賣票所앞에는 公園入場料와 文化財觀覽料의 料金を 同時 表示하고 있으나 그 料금이 어떤 根據에 의해 徵收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徵收權者와 使用處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國立公園 入場料와 文化財 觀覽料에 대하여 살펴보면, 國立公園 入場料는 國立公園管理의 基本法이 되는 自然公園法 第26條를 根據로 하여 그 料率에 대하여는 同法 施行規則에서 다음과 같이 明示하고 있다.

國立公園入場料의 料率表(第11條第1項과 關聯)

區分	어른	靑少年·學生·軍人	어린이	備考
個人	400	300	140	
團體	400	200	100	

이러한 國立公園의 入場料는 國立公園管理廳인 國立公園管理公園 또는 市·道知事(漢拏山國立公園의 境遇)가 徵收하여 公園區域內的 清掃, 各種 便宜施設의 維持補修費에 充當하고 있으나, 全體의 公園維持管理費에는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實情이다.

특히, 公園入場料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法에 歸屬되어 있으므로 隨時引상이 不可能한 반면, 公園管理廳의 管理費와는 전혀 關係가 없는 文化財觀覽料는 文化財保護法 第39條 및 同法 施行規則 第29條의 規定에 의거 文化財觀覽料 徵收權者인 寺刹측의 引上要求

에 따라 이를 管轄 市·道知事 또는 郡守가 承認하고 있어 수시로 引上할 수 있으며 그 引上幅은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해 동안 最低 125%에서 最高 240%에 이르고 있다.

國立公園 入場料와 文化財觀覽料 徵收現況

(어른 基準)

公園管理 事務所名	寺刹名	徵收 方法	公 園 入場料	文 化 財 觀 覽 料			
				87. 1. 1以前	87年	88. 2月	
雪 嶽 山	神興寺	合同	400	350	500	800	
五 臺 山	月精寺	"	400	350	600	800	
雉 岳 山	龜龍寺	"	400	250	400	600	
俗離山 西部	法住寺	"	400	400	800	900	
鷓 龍 山	東鶴寺	"	400	400	500	500	
	甲 寺	"	400	400	500	500	
智異山 南部	華嚴寺	"	400	400	800	800	
	泉隱寺	"	400	250	400	400	
	燕谷寺	"	400	250	400	400	
	東部	双磎寺	"	400	250	550	550
內藏山 北部	內藏寺	"	400	300	500	500	
	南部	白羊寺	"	400	300	500	500
德 裕 山	白連寺	"	400	300	400	400	
周 王 山	大典寺	"	400	200	300	300	
伽鄒山 北部	海印寺	"	400	600	900	900	
智異山 北部	-	單獨	400	-	-	0	
閑麗海上	-	"	400	-	-	0	
漢 拏 山	-	"	400	-	-	0	

\* 公園入場料는 84年 以後 變動없음

따라서, 同一公園의 同一賣票所라 하더라도 入場客이 負擔하는 金額은 자주 그 差異를 보여 民怨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 料金 모두가 公園管理廳에서 全額 執行되는 것으로 잘못 認識 “덧대료 料金を 올리면서 駐車場등 便宜施設이 不足하고

清掃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등 과격한 不滿을 表示하고 있음은 勿論 公園入場을 기피하는 現象까지 나타나고 있다.

實例로, 지난해 觀光傳貰버스등으로 內藏山의 丹楓을 보러 갔다가 入場料(公園入場料 400원+文化財觀覽料 500원)가 負擔스러워 入場을 포기하고 賣票所 밖의 溪谷에서 놀다가 돌아가는 시골사람들이 全體 探訪客의 10~20%에 達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해 8月某日刊紙에 투고된 例를 보면 登攀을 目的으로 伽倻山을 찾았는데 公園入口에서 公園管理事務所 職員이 버스에 올라와 公園入場料 뿐만 아니라 가지도 않을 海印寺의 文化財 觀覽料까지 合同 徵收하는 것은 不當한 處事라고 꼬집고 있다.

이렇게 公園入場料와 文化財觀覽料를 合同 徵收함에 따라 問題가 되고 있는 公園은 우리나라의 全體 20個 國立公園중 現在까지 入場料를 徵收하지 않고 있는 곳 등을 除外한 10個 公園이며 이와 關聯된 寺刹은 俗離山에 位置한 法住寺를 비롯 15個 寺刹이 該當된

다. 이 모든 寺刹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代表的가람으로 境內에는 國寶 및 寶物등 많은 文化財를 保有하고 있어 國立公園內에서 없어서는 안될 主要한 文化資源임을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國立公園을 指定한 根本理念 그대로 國民의 保健休養을 圖謀하기 위한 國立公園이고 보면 利用者들에 대한 不便을 最少化하는 改善策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굳이, 文化財를 觀覽하지 않겠다는 사람까지 一律의으로 合同 徵收하는 것보다는 利用者에게 選擇權을 認定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보다 나은 方法으로는 先進國과 같이 政府에서 모든 公園管理費를 全額 負擔하여 國民 누구나 負擔없이, 그칠 줄 모르는 계곡물 소리와, 마냥 즐겁기만 한 새들과 더불어 우리의 歷史를 배우고 心身을 단련하는 山 教育場으로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아름다운 國立公園이 되었으면 더욱 바람직하다 하겠다.

[筆者: 國立公園管理公園 企劃部]

## 「뺏지」圖案懸賞募集

우리나라의 수려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의 애호 사상을 나타낼 수 있는「뺏지」의 도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길 바랍니다.

■ 도안에 포함될 내용

- ①자연공원 애호 운동을 상징하는 것.
- ②국립공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공원 애호 캠페인과 세미나·공원탐방 등 언제나 부착해도 무방한 내용.

■ 응모규격: ①디자인이 간결한 것. ② 16절 캔트지 단색 또는 4색도 이내

■ 응모기간 및 보낼 곳: ①1988년11월30일까지 ②서울 종로구 내자동 19번지 한국국립공원협회 사무국

■ 당선작 발표 연기함

本誌 88年 12月 發刊誌에 발표 예정

■ 상금: ①당선작 1 점: 100,000원 및 本誌 2年間 贈呈 ②가작 2 점: 각20,000원 및 本誌 2年間 贈呈

■ 심사: 협회 심사위원 및 사계 권위자

- 기타: ① 응모 작품수와 자격은 제한 없음. ②원고지 2매 이내의 설명과 주소, 성명, 연령, 성별을 기재할 것.
- ③ 접수된 원고는 반환치 않음. ④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사무국(Tel. 736-9656)으로 문의 바랍니다.

※ 현재 총 12건이 접수되었으나 연기요청 회원과 독자가 있어 재차 심사 연기하오니 작품을 내어주시는 분의 해량을 바랍니다.

※ 當選作이 없으면 계속 연기됨.